

「시골유지의 이야기」: 도덕적 이야기인가, 픽션인가?*

이동춘 (대구대)

초서의 이야기에는 플롯의 전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이야기 외적인 요소, 예를 들면 ‘이야기 안의 이야기’(an inset tale), 하나의 사건과 장면에 대한 화자의 필요 이상의 자세한 묘사나 설명, 혹은 주제와 스타일면에서의 상반된 두 요소의 병치 등이 기능적 사건(functional event)과 사건 사이에 더해져 있다. 피상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은 이야기의 직선적인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구조적인 불일치’(structural disunity)와 ‘단절’(discontinuity), 혹은 ‘모순’(inconsistency)등의 현상을 불러온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요소들은 전통적인 이야기에서 화자가 독자의 반응을 통제하는 것과는 반대로 ‘텍스트의 열림’(openness of text)이나 ‘다성적 목소리’(multiplicity of voices)를 이끌어내기

* 본 논문은 2005년 대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짐.

위한 초서의 독특한 기법들로 궁극적으로는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독자의 지적능력과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법과 더불어 초서는 화자가 전하는 이야기 안에 모순적이거나 상황이나 이치에 어긋나는 내용을 첨가함으로써 화자가 전하는 이야기 속에 독자가 수동적으로 빠져들거나 화자의 관점이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방해한다. 초서의 이러한 내러티브 스타일은 독자가 이야기의 화자와 거리를 유지하도록 할 뿐더러 화자를 거짓말쟁이이며, 화자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은 어떠한 절대적인 진리나 생각이 아닌 ‘픽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독자의 마음속에 일깨워주는 구실을 한다.¹⁾ 하워드(Donald Howard)는 이를 두고 초서의 내러티브는 “자기 발견의 픽션(이야기)들”(fictions of self-discovery)이라고 까지 말한다(102). 아울러 초서의 대부분 이야기들은 허공에 맴도는 수많은 “소식들”(tidings)에 불과하며, 이들 안에 내재된 의미나 진리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몫은 독자에게 달려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러나 이야기의 화자가 전하는 내용이 사실이나 진리가 아닌 한낱 픽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초서는 화자의 목소리에 반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이야기에 직접적으로 주입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다만 화자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앞서 언급한 실수들을 범하게 만들거나 화자의 의도에 어울리지 않은 원전의 인용 등을 통하여 화자 스스로 자신이 허구적 이야기를 전하는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시골 사제의 이야기」(*The Parson's Tale*)나 「철회」(*Retraction*) 등을 제외한 『캔터베리 이야기』 안의 모든 이야기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초서의 기법과 함께 그의 의도가 드러난다. 본 논문에서 논하게 될 「시골유지의 이야기」(*The Franklin's Tale*) 또한 예외가 아니다. 피상적으로 볼 때, 다른 이야기에 비하여 이 작품에 이야기 외적 요소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이로 인하여 이야기의 흐름이 단절되거나

1) Barbara Nolan, “‘A Poet Ther Was’: Chaucer’s Voices in the General Prologue to *The Canterbury Tales*,” *PMLA* 101 (1986): 154-69를 참조할 것. 이외에도 초서 작품에서 독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Leonard Michael Koff, *Chaucer and the Art of Storytelling*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8), 38을 참조할 것.

구조적으로 모순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다소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화자가 전하는 교훈적 메시지에 의문을 품는 독자 또한 다른 작품에 비하여 그 수가 덜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초서는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우 교묘하게 기술적인 방법으로 화자인 시골유지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독자가 수긍할만한 도덕적 덕목이나 교훈이기보다는 한낱 언어 기호들(verbal signs) 혹은 기표들(signifiers)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화자 역시 독자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 보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초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화자 자신의 입과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골유지의 이야기」에서 이야기의 의미 혹은 초서의 의도는 단순히 이야기 전달자인 화자의 말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초서는 독자의 주관적이며 비판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요지는 구조적으로 완벽할뿐더러 이야기의 내용과 화법이 매우 세련되어 보이는 「시골유지의 이야기」가 화자가 의도하는 도덕적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픽션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는데 있다. 먼저 초서가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의 화자인 시골유지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볼 것이다. 작품에 그려져 있는 그의 행동과 성격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 당시 시골유지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지 알아봄으로써 이야기를 통하여 그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화자가 단순히 허구적 이야기를 전하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하며 그가 전하는 관점이나 주장을 독자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초서가 어떤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알아보려 한다. 다른 작품에 비하여 눈에 잘 드러나지 않으나 「시골유지의 이야기」에서 또한 화자 스스로 앞 뒤 정황에 서로 모순되는 실수를 범하거나 작품의 분위기나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 등장인물들의 모순적이며 코믹한 행동 등을 그려내고 있다. 화자의 이러한 실수는 작품의 분위기를 훼손할뿐더러 화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이나 주장에 대하여 독자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화자가 작품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결혼 및 결혼과 관련

하여 그가 인용하는 원전의 내용을 당시 사회적 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해볼 것이다. 이는 화자인 시골유지가 자신이 인용하는 원전의 본래 의미나 사회적 통념을 무시한 채 이들 내용들을 자신의 의도에 걸맞도록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는지 말해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통하여 화자가 전달하려는 의도가 자기 중심적이며 허구로 가득 차있어 독자의 수궁보다는 실소만을 이끌어낼 뿐이다.

I. 시골유지는 당시 어떤 사람이었는가?

초서는 자신이 살던 시대의 통념과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삶을 영위한 작가는 아니었다. 동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위나 현상에 대하여 편견 또한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다만 작가로서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통찰력이 뛰어났고 과학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를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초서는 그의 삶 가운데 오랜 기간을 궁정에서 생활한 탓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체제의 안정과 질서를 옹호하는 편이다.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 또한 ‘침실설교’(pillow lecture)에서 바쓰의 여장부가 강변하는 내용과는 달리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숙명적으로 선대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라고 초서는 믿었다. 아울러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해진 행동과 역할을 각자가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초서는 보았다. 초서의 이러한 입장에서 시골유지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신분을 넘어 새로운 신분세계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시골유지의 행동과 태도에 대하여 초서는 다소 부정적이며 냉소적인 태도를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다. 화자인 시골유지는 자신의 신분이 귀족에 버금가는 것임을 의도적으로 돋보이기 위하여 매우 세련되고 화려한 언어를 사용할뿐더러 그의 이상을 실현시킬만한 인물들을 작품에 등장시키고 있다. 이것이 초서의 눈에 긍정적으로 비추어질리 만무하다.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 볼 때, 시골유지는 초서의 「총 서시」에도 드러나 있듯이 상당한 재산과 물질적 풍요를 누렸던 젠트리(gentry)계층의 인물이었다. 그렇

다고 해서 당시 시골유지라는 계층이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성장한 벼락부자(parvenu)들 또한 아니었던 듯싶다(Gordon 262-79). 시골유지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더러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중세 사회의 존경받는 구성원들 가운데 한 계층이었음은 틀림없다(Specht 124-23). 그러나 시골유지에 대한 초서의 묘사를 감안해볼 때, 초서가 살던 시대의 시골유지 계층은 당시 귀족에 버금가는 그 다지 높은 사회적 신분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초서는 「총 서시」에서 시골유지의 사회적 위치를 당시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그가 수행하는 역할을 낱말이 말하고 있는데, 그의 묘사에 따르면 시골유지는 치안 행정관(sheriff) 및 판사(justice of the peace), 그리고 지역 의원(member of parliament), 세수(稅收)를 관리하는 법률가("contour")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치안 행정관은 당시 사회적으로 시골유지 보다는 높은 지위의 인물들에게 주로 맡겨졌던 보직인 반면, 나머지 세 개의 직책은 귀족이 아닌 젠트리 계층들 가운데서도 신분적으로 낮은 인물들에게 맡겨졌던 것들이다(Saul 10-26).

초서는 이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매우 우회적이며 간접적인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당시 시골유지라는 신분이 어느 정도였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초서의 묘사만으로 볼 때, 시골유지가 기사에 버금가는 귀족신분은 아니었으나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당시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듯하다. 다만 14세기 영국 사회에서 시골유지란 기사와 마찬가지로 과거 대대로 선대(先代) 때부터 이어 내려온 완전한 귀족계층에 속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귀족은 귀족이되 가장 말단의 귀족답지 않은 명목상의 귀족이 바로 시골유지인 셈이다.²⁾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당시 시

2) 이와 같은 주장을 보이는 비평가로서 Derek S. Brewer, "Class Distinction in Chaucer," *Speculum* 43 (1968): 290-305; Roy J. Percy, "Chaucer's Franklin and the Literary Vavasour," *Chaucer Review* 8 (1973-74): 33-59; Nigel Saul, "The Social Status of Chaucer's Franklin: A Reconsideration," *M/E* 52 (1983): 10-26; P. R. Coss, "Literature and Social Terminology: The Vavasour in England," *Social Relations and Ideas: Essays in Honour of R. H. Hilton*, ed. T. H. Ashton et al.

골유지는 귀족의 문턱에서 야누스적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으로서, 경제적으로는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 귀족에 버금가는 물질적 풍요를 향유하고 있으나 사회 통념상 귀족의 정서와 이상을 공유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임에 틀림없으나 당시 사회적으로 두 번째 높은 귀족 계층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인물이 바로 시골유지였다. 자신이 처한 불안정한 사회적 위치 때문에 시골유지는 간혹 문학작품에서 풍자 혹은 조롱의 대상으로 설정되곤 한다고 브루어(Derek Brewer)는 말한다(70). 본 논문에서 논할 시골유지 또한 브루어가 말하는 그런 부류의 인물에 해당한다. 신분적으로 어정쩡할뿐더러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시골유지는 항상 신분의 안정, 즉 귀족계층에 편입되고파하며 남들이 자신을 귀족으로 인정해주길 바라는 욕망이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시골유지의 이러한 심리 상태를 꿰뚫고 있었던 초서는 그에 대한 묘사와 그가 하는 말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독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자신이 귀족이 될 수 없고 귀족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시골유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듯 초서의 시골유지는 항상 현실보다는 이상을 그리고 실재보다는 외형에 더욱 더 신경을 쓰는 인물이다. 시골유지는 순례자들이 자신의 실제 모습, 다시 말해서 사회적 위치나 신분보다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하여 자신을 평가해주길 바라고 있는 듯싶다. 이는 내면의 감춰진 상처, 즉 불안정한 신분과 신분 상승의 욕망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시골유지의 바람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자의 이야기」(*The Squire's Tale*)가 끝난 뒤, 여관주인인 베일리(Harry Bailey)와 시골유지가 주고받는 대화에서 시골유지의 이 같은 욕망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

여관주인이 말하길, “귀족의 뉘뉘이니 그런 것일랑 그만두시오!”
 “시골유지 나리! 잘 아시지 않소,
 제발, 이젠 누군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나, 둘 들려줘야 하오,
 약속을 깨트릴 실 작정이오.”

시골유지가 답하길 “나도 잘 알고 있소
 부탁하건대, 내가 이 젊은이에게 몇 마디 했다 해서,
 그리 나쁘게 생각하진 마시오.”³⁾

“Straw for youre gentillesse!” quod oure Hoost.
 “What, Frankeleyn! Pardee, sire, well thou woost
 That ech of yow moot tellen atte leste
 A tale or two, or breken his biheste.”
 “That knowe I wel, sire,” quod the Frankeleyn.
 “I preye yow, haveth me nat in desdeyn,
 Though to this man I speke a word or two.” (695-702)⁴⁾

베일리의 요구에 대한 시골유지의 반응은 도가 지나치며 과장된 느낌이 든다. 베일리는 단순히 약속대로 시골유지에게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 것을 부탁하는데, 시골유지는 혹시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른 순례자들에게 잘못 비취질까 매우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그의 말—“haveth me nat in desdeyn”—에도 암시되어있듯이 무엇보다 주위 순례자들이 자신을 가볍게 보지 않을까 스스로 자격지심 내지 두려움에 차있는 모습이다. 이야기의 진행을 맡고 있는 여관주인의 이러한 요구 때문에 시골유지가 모욕이나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순례 이야기꾼은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오직 당사자인 시골유지만이 그렇게 생각할 따름이다. 그럴듯하며 화려한 외면 세계를 통하여 내면세계의 부족함을 극복하

3) 본 논문에 인용된 『캔터베리 이야기』의 우리말 번역은 2005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이동일, 이동춘 역, 『캔터베리 이야기 III』(서울: 외대출판부, 2005.)을 따르고 있음.

4) 본 논문에 인용된 『캔터베리 이야기』의 원문은 *The Riverside Chaucer*, Larry D. Benson, gen. ed. (Boston: Houghton Mifflin, 1987)를 따르고 있음.

려는 시골유지만의 당연한 반응인 것이다.

외면에 신경을 쏟는 시골유지의 태도는 그가 에피큐르스 학파에 심취한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또다시 부각된다. 「총 서시」에서 초서는 시골유지를 “에피큐르스 학파의 자손”(A 336)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에피큐르스 가르침의 핵심은 모든 이성적 판단과 사고는 실수를 범하기 마련이며 오직 진실은 감각적인 것에만 있다는 것이다(Rist 37-40). 육체적 즐거움, 풍요로운 음식 그리고 화려한 외모가 시골유지의 유일한 행복이라는 점에서 초서는 단순히 그를 에피큐르스 학파의 자손이라고 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사와 같은 귀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시골유지의 심리적 열등의식을 『켄터베리 이야기』의 창조주인 초서는 간파하고 있었을 것이다. 시골유지는 논리적이며 이성적으로 사물이나 인간의 내면을 깊숙이 통찰하는 태도를 거부하며, 오히려 오감, 특히 눈에 비취지는 외부세계에 보다 큰 비중을 부여하는 인물이었기에 초서는 그를 에피큐르스 학파의 자손으로 그를 칭했을 것이다. 쇼프(R.A. Shoaf)의 주장처럼 시골유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사실 그 자체가 메두사(Medusa)를 바라보는 것만큼이나 끔찍한 일로 여기는 듯하다(278-89).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베일리의 요구에 시골유지가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내면의 심리 상태를 감춘 채 눈에 보이는 외면 세계를 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시골유지의 노력은 그의 행동과 태도에서 드러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가 수행한 직책 만해도 한두 가지가 아닐 정도로 시골유지는 매우 활동적인 인물이었다. 지수성가형의 인물로서 다양한 사회적 직책을 이용하여 그는 나름대로 대외적인 이미지를 구축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신분적으로 귀족은 아니나 이를 감추기라도 하듯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행동과 태도는 비굴할 정도이다. 순례자들에게 말할 때 항상 그들을 높이 떠받들듯한 태도로 그는 말하는가하면(716, 761, 1621), 심지어 베일리를 언급할 때 존칭 표현을 두 번 거듭 사용할 정도이다(699, 703).⁵⁾ 다른 한편으로 시골유지는 주위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 예를 들어 재산은 물론이거

니와 학식이나 도덕적 지혜 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매우 겸손한 태도로 자신은 수사학 따윈 접해 보지 못해서 자신의 말투가 밋밋하고 평이할 따름이라고 말한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이나 타고 온 말이며 그의 행동을 고려해볼 때, 순례자들 가운데 그의 말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심지어 수사학을 전혀 접해보지도 못했다는 사람이 키케로의 이름 전체를 언급할 정도이며 그의 이야기 속에는 수사학 기법으로 가득 차있다. 가능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세우며 겸손한 태도를 지니는 이유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혹시 이들을 자극하여 자신의 부족한 점, 즉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 이들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 드러나지 않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것처럼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모른다.

내면의 심리상태를 감춘 채 가능한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에 큰 비중을 두는 시골유지의 태도는 종자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그의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종자의 이야기」에 대한 시골유지의 평가는 그의 관심이 이야기의 본질, 즉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해준다. 상투적인 기법과 관습에 따라 종자가 하는 이야기에 귀족의 숭고한 덕목과 가치가 구체화되어 있다고 시골유지는 생각하며, 이야기를 전하는 종자의 수사학이나 감수성, 그리고 그의 재치를 극찬한다. 「종자의 이야기」를 이처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초서를 비롯한 다른 순례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다. 이야기꾼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은 어린 종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순례자와는 달리 오직 시골유지만이 어린 종자와 그의 이야기를 이처럼 극찬하는 것은 종자의 신분 때문이다.⁶⁾ 종자는 아직 어린 나이이나 언젠

5) 시골유지의 주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거나 아부하는 듯한 성품에 대하여 다음 비평가들에 의해서 오래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다. R. M. Lumiansky, "The Character and Performance of Chaucer's Franklin," *UTQ* 20 (1951), 347 ff.; Bernard Huppe, *A Reading of the Canterbury Tales*, 165; Alan T. Gaylord, "The Promises in The Franklin's Tale," *ELH* 31 (1964), 346.

6) 캔터베리 순례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내용과 형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인위적인 느낌을 주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자의 이야기」이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Arthur W. Hoffman, "Chaucer's Prologue to Pilgrimage: The Two

가는 귀족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인물이기 때문에 시골유지의 눈에는 이야기의 내용이나 그의 인격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것이다. 오직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종자의 신분 그 자체이며 가능하다면 자신과 종자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또한, 펙(Russell Peck) 교수의 지적대로 시골유지에게 기사도는 신분상 결코 자신이 소유할 수 없는 숭고한 꿈이요 희망인 셈이다(259). 이를 감안할 때, 시골유지는 자신의 내적 소망, 즉 귀족신분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종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기사의 모습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고 보았는지도 모른다.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귀족 신분에 대한 시골유지의 동경은 자신의 아들과 어린 종자를 비교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부는 축적했으나 신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시골유지로서는 뭔가 항상 부족함을 느꼈을 것이며, 동시에 이를 보충하고자 하는 심리적 충동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곤 했을 것이다. 또한 시골유지는 자신의 이러한 심리 상태를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해결해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자신의 소망을 충족시키기에 다소 거리가 먼 난봉꾼에 불과하여 오히려 그의 마음 속 욕망을 더욱 더 부채질 할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종자의 모습과 행동이 시골유지에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지도 모른다. 귀족의 신분과 귀족의 됃됨이만 갖출 수 있다면 시골유지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보인다(Fy on possessioun, / But if a man be vertuous withal!; 686-87).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재산마저도 거부하며 종자의 귀족 됃됨이를 “20파운드 땅”(twenty pound worth lond; 683)의 가치를 훨씬 넘은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아마 시골유지 또한 다른 순례자들과 마찬가지로 캔터베리 순례와 자신의 이야기를 그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욕망을 실현시키는 계기로 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물질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으나 귀족 신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픽션을 통해서나마 한층 올리고

Voices,” *ELH* 21 (1954), 6-7을 참고

싶었는지 모른다. 이런 점에서 「시골유지의 이야기」는 「바쓰의 여장부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인 셈이다.

II. 내재적 분석을 통해 본 「시골유지의 이야기」: 시골유지의 가치관과 욕망의 실현

시골유지가 하는 이야기를 파악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 외부로 비춰지는 시골유지의 이미지와 더불어 그의 심리적 상태이다. 이 둘 사이는 상호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신의 불안정한 사회적 신분을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시골유지로서는 가능한 외부로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열등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외부 세계를 통하여 실제 세계를 감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또한 자신의 실제 신분을 주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위장함과 동시에 귀족으로 인정받고 싶은 자신의 내적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그는 부단히 애쓰고 있음을 「종자의 이야기」에 대한 평가와 그가 하는 이야기에서 드러난다. 시골유지의 이러한 마음을 한 눈에 알아본 베일리는 그에 대한 첫마디로 “귀족의 됴됨이니 그런 것일랑 그만두시오!”(Straw for youre gentillesse!)라고 말할 정도이다. 그러나 시골유지가 하는 이야기는 신분상 그가 갈망하는 귀족들과 그들이 보여주는 도덕적 덕목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공허하기 이를 데 없다. 로벗슨(D.W. Robertson)의 지적대로 시골유지 자신은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이 귀족으로서의 덕목을 실현시키고 있다고 믿을지 모르나 실제 어느 누구도 그러한 가치나 덕목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366). 마치 화자 자신이 그러하듯이 외형적으로 각각의 등장인물들은 귀족의 덕목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텅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과 덕목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은 화자가 사용하는 원전과 화자가 전하는 이야기와의 비교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화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브리타니 사람들의 모험담(Breton lai)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화자는 자신의 이야기에는 기사들의 모험과 사랑, 그리고 결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가 하는 이야기의 원전은 보카치오의 작품(*Il Filocolo*)이다.⁷⁾ 화자가 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원전에 기사도의 덕목과 가치를 덮칠 해놓았을 뿐 실제 기사도적 로맨스는 아니다. 왜 로맨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로맨스, 그것도 고대 브리타니 사람들이 읊었던 노래라고 말했을까? 시작부터 주위 순례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귀족인 종자와 기사가 한 이야기에 버금가는 고상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주입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 아울러 현실 혹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을 꺼려하는 그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그리고 사실적인 이야기보다는 먼 과거의 허구적인 이야기가 화자의 구미에 더욱 더 들어맞았을 수 있다.

또한 원전과 화자의 이야기를 비교해 볼 때 앞서 언급한 화자 자신의 의도와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다. 먼저 보카치오 작품에는 화자가 전달하려는 어떠한 도덕적 교훈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기사나 종자가 하는 이야기의 내용과 경합이라도 별이듯이 화자는 각각의 등장인물의 행동과 모습을 자신이 의도하는 도덕적 덕목으로 포장하고 있다. 특히 화자가 강조하는 것은 ‘귀족 신분’ 혹은 ‘귀족으로서의 됴됨이’(gentillesse)인데 이는 자신 스스로가 숨기고 싶은 것인 동시에 마음속 깊이 갈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전에는 등장인물들이 겪는 딜레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등장인물들의 행동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자리매김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한 딜레마를 등장인물들이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화자인 시골유지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임의대로 등장인물의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되겠지만 이는 결국 화자가 하는

7) W. F. Bryan and G. Dempster, *Sources and Analogues of Chaucer's Canterbury Tales* (New York: Humanities P, 1941), 377-97; R. P. Miller, *Chaucer Sources and Backgrounds* (New York: Oxford UP, 1977), 121-35; N. R. Havelly, *Chaucer's Boccaccio* (Totowa: Rowman & Littlefield, 1980), 154-61.

이야기에 모순과 불일치, 그리고 불합리만을 이끌어 낼뿐이다. 그의 이야기와 원전과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은 화자의 성품에서 비롯된다. 보카치오의 작품에서 서생(clerk)과 부인과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실제 이루어지는 반면, 화자의 이야기에서 둘 사이의 약속은 눈속임에 불과한 것으로 외면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게다가 보카치오 작품에서 부인은 자신의 요구한 과일을 정원에서 실제 따는 반면, 시골유지의 이야기에서 도리겐(Dorigen)은 직접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자신의 요구가 실현되었다고 믿는다. 이는 바로 화자인 시골유지의 관점 혹은 태도가 도리겐에게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리겐의 경우 외에 아르베라구스(Arveragus) 또한 화자는 의도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보카치오의 기사는 최고의 사회적 신분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에 버금가는 배필을 구한다. 이에 반하여 화자의 기사는 자신처럼 완벽한 귀족의 신분은 아닌 듯하며, 자신보다 높은 귀족신분의 도리겐을 부인으로 맞는다. 화자의 신분 상승의 갈망이 아르베라구스의 결혼에 투영되어 있는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원전에는 기사가 모험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쌓기 위해 집을 떠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와는 다르게 화자의 이야기에서 기사는 결혼하자 “명예와 명성을 얻기 위하여” 집을 비운다. 이러한 사실 또한 자수성가한 시골유지 자신의 생활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급한 약속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보카치오의 기사는 부인에게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아르베라구스는 자신이 오히려 슬픔에 빠지며 어두운 표정을 짓지 말고 남에게 이 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도리겐에게 경고한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아르베라구스의 이러한 행동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아르베라구스라는 기사가 재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의 행동 또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골유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재창출하기 위하여 원전에 가한 이러한 변화들을 독자들에게 자신의 심리상태와 의도를 암시해줄 뿐만 아니라 게이로드(Alan Gaylord)의 말대로 화자의 “허실” 그 자체 드러내준다(364).

A. 모순과 불일치

뿐만 아니라 원전을 자신의 의도에 맞추어 바꾸는 과정에서 화자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에서 모순을 범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화자의 관점이거나 주장을 독자가 신뢰할 수 없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다. 여러 가지 모순들 가운데 초서 자신이 화자의 이야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화자 스스로의 모순되며 일관적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게 함으로서 초서는 화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만든다. 이는 매우 은밀하면서도 암시적이어서 독자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지적 판단능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의 종속과 지배는 각자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이라고 화자는 말한다. 그런 뒤, 화자는 부부 사이의 중요한 덕목으로서 ‘인내심’에 대하여 설파한다.

사랑에서 누가 가장 강한 인내심을 갖고 있는지를 봅시다.
 그 자야말로 이들을 제치고 선점(先占)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내는 진정 고귀한 덕성입습조.
 왜냐하면 학자들이 말하듯이 그것은 엄정(嚴正)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Looke who that is moost pacient in love,
 He is at his avantage al above.
 Pacience is an heigh vertu, certeyn,
 For it venquysseth, as thise clerkes seyn,
 Thynges that rigour sholde nevere atteyne. (771-5)

화자의 표현대로라면 사랑하는데 있어 ‘인내심’은 둘 사이에 우위를 획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지배와 종속이 불합리하며 이는 또한 각자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라고 말한 화자가 여기에서 우위며 지배를 운운하고 있다. 화자는 앞서 반복한 것을 자신도 모르게 또 다시 그 의미를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그가 사용하는 대명사 ‘He’는 다시 한 번 소유격

‘His’로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인내심의 주역도 남성이며 이를 통하여 주도권을 획득하는 것도 남성임을 화자는 암시하고 있다. 주도권내지 우위(*avantage*)를 점유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화자가 강조하는 인내심이며 그것과 연관된 덕목들은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아르베라구스의 맹세와 그 가치를 잠식시키고 만다: “그는 평생토록 낮이건 밤이건 아내의 뜻에 반(反)해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That nevere in al his lyf he, day ne nyght, / Ne sholde upon hym take no maistrie; 746-7). 화자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화자 자신이 가장 이상적인 결혼관계로서 제시하고 있는 아르베라구스와 도리겐의 계약은 겉으로는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인 셈이다. 결국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도중에 자신도 모르게 앞과 뒤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의 이 같은 모순은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아우렐리우스와 도리겐과의 약속, 그리고 이로 인하여 도리겐이 처한 곤경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화자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모순된 이야기를 한다. 도리겐이 무심코 한 약속이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아르베라구스를 곤경에 빠트리며 궁극적으로는 ‘귀족으로서의 덕목’(*gentillesse*) 덕분에 이들 모두가 곤경에서 벗어난다는 요지를 독자들에게 주시시키려는 것이 화자의 의도이다. 이것에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화자는 상식마저도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도리겐이 남편인 아르베라구스에게 하는 결혼 맹세는 종교적 신념마저도 배어 나오는 신성한 것임에 틀림없다: “제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당신의 유순하고 충실한 아내가 되겠습니다”(“Sire, I wol be youre humble trewe wyf; / Have heer my trouthe, til that myn herte breste”; 758-9). 그러나 도리겐의 결혼 서약보다 단순히 장난 삼아 아우렐리우스에게 한 약속이 더욱 더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모습이다. 심지어 아르베라구스마저도 자신과 도리겐이 한 약속보다 도리겐이 아우렐리우스와 한 약속이 더욱 더 중요라도 하듯이 그와의 약속을 지킬 것을 도리겐에게 강요한다: “어떠한 상황이든 당신이 한 약속을 지켜야만 하오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는 것이요”(“But if ye sholde youre trouthe kepe and save. / Trouthe is the hyeste thing that man may kepe”; 1478-79). 결혼의 신성한 서약과 남녀 간의 단순한 약속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화자는 물론이거니와 화자의 이상을 반영하고 있는 아르베라구스 또한 철저히 간과하고 있는 셈이다.

상식과 관례를 넘어선 아르베라구스의 요구는 또한 앞서 자신이 도리젠에게 한 결혼맹세를 반하는 것이다. 그는 기사와 명예를 걸고 아내인 도리젠에게 순종하고 매사에 그녀에 뜻에 따라 행동할 것을 맹세하였다(745-52). 그는 다만 남편이라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명목상의 주도권만을 가지기로 다짐하였다. 그러나 곤경에 처한 도리젠에게 그가 하는 행동과 말은 군주의 역할에 버금갈 정도로 매우 권위적이며 일방적이다. 그녀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하나하나 명령을 내리는 그의 모습은 군주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이는 그가 화자가 말한 명목상의 주도권만을 지닌 인물이 절대 아님을 입증해준다. 더군다나 아르베라구스는 자신이 먼저 울음을 터트리며 자신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인물이다: “최선을 다해 내 이 고통을 견뎌내겠소”(As I may best, I wol my wo endure). 화자가 앞에서 언급한 귀족으로서의 덕목들—*franchise*, *curteisie*, *gentillesse*—과 가치는 수사적인 말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그의 행동과 모습이 이를 입증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그녀에게 목숨을 걸고라도 남에게 이 일을 발설하지 말라고까지 명령한다.

죽음의 고통을 감수하고 당신에게 당부하겠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일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오
 나 역시 최선을 다해 이 고통을 견뎌 내도록 하겠소
 남들로 하여금 당신 신변에 우환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우울한 표정일랑 짓지 마시오

I yow forbede, up peyne of deeth,

That nevere, while thee lasteth lyf ne breeth,
 To no wight telle thou of this adventure,—
 As I may best, I wol my wo endure,—
 Ne make no contenance of hevynesse,
 That folk of yow may demen harm or gesse. (1481-86)

죽음보다 아르베라구스에게는 더욱 더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아르베라구스의 체면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 가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아르베라구스이다. 심지어 이를 위해서라면 아내의 감정마저도 필요에 따라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한 아르베라구스이다. 작품의 시작부분에서 화자가 닳고자하는 이상적인 기사가 바로 아르베라구스이며, 아르베라구스는 또한 화자의 욕망과 생각을 대변해주는 인물인 셈이다.

B. 코믹한 등장인물

아르베라구스에 대한 화자의 초기 묘사와 실제 아르베라구스의 행동과의 차이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관점과 주장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는 단순히 작가 초서가 자신도 모르게 범한 작은 실수라고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시골유지가 하는 이야기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초서는 독자도 하여금 화자와 독자 사이의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화자가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독자의 주관적이며 비판적 판단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골유지의 이야기를 당시 독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독자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들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그가 설정해놓은 등장인물들에서 비롯된다. 화자는 등장인물들이 자신이 의도한 대로 귀족으로서의 덕목과 가치를 진지하게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앞서 보았던 아르베라구스의 경우처럼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은 전체적인 내용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작품의 분위기를 우스꽝스럽게 이끄

는 역할을 한다. 또한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모습이 겉으로는 화자가 의도하는 귀족의 덕목으로 포장되어 있는 듯 보이거나 실질적으로는 공허하고 과장된 느낌을 줄 뿐이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인 시골유지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화자의 본심마저도 의심케 한다. 이것이 바로 초서의 의도로서 「시골유지의 이야기」가 하나의 절대적 의미나 가치를 전달하는 도덕적 이야기가 아닌 한낱 기호들의 결합에 불과한 픽션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앞서 언급한 아르베라구스의 경우 이상적인 남편이며 기사로서의 묘사와 실제 그가 보여주는 행동 사이의 차이는 바로 화자 자신을 반영하고 있다. 화자인 시골유지 또한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귀족 아닌 귀족으로서의 부족함을 감추고 신분적으로 주위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아르베라구스 또한 겉으로는 당시 기사들에게 요구되었던 도덕적 덕목을 두루 갖춘 이상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달리 그의 행동과 태도는 귀족적이기보다는 당시 중간계층의 상업적인 태도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다(Peck 260). 화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무척이나 신경을 쓰듯이, 아르베라구스 또한 앞서 보았듯이 곤경에 빠진 도리겐보다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체면이 손상이 되거나 수치를 당할까 근심하는 모습이다. 도리겐의 외도로 인하여 자신에게 돌아올 수 치와 고통을 먼저 고민하는 위선적인 인물이 바로 아르베라구스이다. 그의 행동은 귀족의 덕목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는 자기중심적이며 위선적인 그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르베라구스의 이러한 행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화자인데, 화자는 아르베라구스의 귀족답지 않는 행동과 태도로부터 독자들의 관심을 돌리게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이 이들이
아내를 이와 같은 곤경에 몰아넣는 이 남편을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도리젠의 처지가 부당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기 전에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보라.
 그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Paraventure an heep of yow, ywis,
 Wol holden hym a lewed man in this
 That he wol putte his wyf in jupartie.
 Herkneþ the tale er ye upon hire crie.
 She may have bettre fortune than yow semeth,
 And whan that ye han herd the tale, demeth. (1493-98)

화자의 요지는 있는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보자는 것이다. 일단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끝까지 듣다보면 도리젠은 물론이거니와 도리젠을 이와 같은 곤경으로 이끈 아르베라구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화자의 뜻으로 보인다. 쇼프는 모든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며 감각을 통하여 모든 우상들(idols)을 수집한 뒤에 판단하라는 것은 완벽한 에피쿠르스적 태도로서 화자의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279). 이성적이며 합리적으로 사물이나 인물의 본질을 판단하기를 회피하는 화자이기에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아르베라구스의 실제 모습이 독자들에게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은 화자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독자가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독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일이 아르베라구스와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는 화자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화자인 시골유지나 아르베라구스는 외면만을 내세우며 내면은 텅 비어있는 위선적인 인간들로서 이들의 모든 행동과 모습은 콘드렌(Edward Condren)의 표현대로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163).

도리젠 또한 앞서 언급했다시피 화자의 의도에 따라 창조된 인물로서 원전에서와는 달리 아우렐리우스에게 요구한 것이 실현되었는가에 대해서 실제로 확신조차하지 않는 외형 강조형의 인물이다. 도리젠이 현실을 회피하고 이상과 외

형을 강조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은 바다에 솟아있는 바위에 대한 그녀의 태도에 서도 볼 수 있다. 바위가 현실적으로 그녀 남편의 안녕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바다에서 바위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다. 대신 그녀는 자연이 아닌 인위적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정원에 들어간다. 오웬(Charles A. Owen, Jr)의 지적대로 도리젠이 바다 속 바위가 제거되기를 원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서 비롯되는 현실적인 것들, 예를 들어 결혼으로 인한 고통이나 문제 등을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그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울러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행동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도외시 한 채 결혼을 오직 이상적인 사랑의 연속으로 보고 싶은 도리젠의 환상을 말하는 것이다(253). 이처럼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과 외형에 집착하는 도리젠의 태도는 화자나 그녀의 남편인 아르베라구스가 보여주는 태도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도리젠은 또한 감각, 감정, 그리고 본능으로 삶을 영위하는 화자의 전형적인 피조물로 볼 수 있다. 아르베라구스가 없는 동안 그녀는 결혼한 여성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녀는 애통해하며, 밤을 지새우며 울부짖었고,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비통해했다; 남편이 돌아와 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녀의 심중을 너무도 억눌렀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세상천지 모든 일이 무의미했다.

She moorneth, waketh, wayleth, fasteth, pleyneth;
Desir of his presence hire so destreyneeth
That al this wyde world she sette at noght. (819-21)

백 교수는 도리젠이 보이는 욕망은 「방앗간 주인의 이야기」(*The Miller's Tale*)에서 엘리슨(Alison)과 「상인의 이야기」(*The Merchant's Tale*)에서 메이(May)가 보이는 욕망과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263). 오히려 다소 인간적인 모습의 엘리슨이나 메이 보여주는 욕망과는 달리 도리젠의 이러한 욕망은 고상한 귀부인의 걸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위선적인 그녀의 모습을 부각시킬 뿐

이다.

뿐만 아니라 도리겐의 감정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관행적이며 기계적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어떠한 진실성도 없어 보인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 현실로 일어남에 따라 도리겐은 자신이 부정한 아내가 되어 명성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한다. 도리겐은 자신을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끊은 역사상의 많은 여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리겐은 자신이 예로 들고 있는 인물들이 실제 어떤 여성들이었으며, 자신의 처지와 이들과 어떠한 점에서 유사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도리겐은 이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통스럽고 심각한 분위기에서 이들 여성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보다는 도리겐은 마치 자신이 과거 한때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한 때 배운 내용을 줄줄이 나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뿐이다. 화자의 초점 또한 오직 도리겐의 감정이 고조되어 있다는 사실에만 집착할 뿐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듯싶다. 결국 남편과의 약속과 자신의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도리겐이 선택할 것만 같았던 자살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는 이내 허물어지고 만다. 자살을 하기 위한 전주곡처럼 들렸던 여성들의 나열들은 단순히 도리겐의 자살을 연기하고 실제 그녀의 의도를 무산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또한 도리겐의 모습과 행동은 화자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하는 귀족의 뒤틀림에는 물론 결혼한 여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아르베라구스가 집을 떠난 뒤, 앞서 보았듯이 그녀는 정신이 나간 여자의 행동과 태도를 보이며 마치 귀부인의 관행적 모습처럼 눈물과 탄식으로 나날을 보낸다. 여기에서 그녀가 보여주는 감정은 지나칠 정도로 과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러한 감정을 화자는 마치 당시 귀부인이라면 마땅히 그러해야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화자 자신이 결혼과 사랑과의 차이를 혼동하고 있는 느낌이다. 화자의 혼동은 자신의 피조물인 도리겐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 작품의 초반부에 묘사되어 있는 도리겐은 결혼한 여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도리겐은 아직도 사랑이라는 이상과 환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느낌이

든다. 심지어 현실을 외면한 환상의 세계 속에서 도리겐에게 모든 것은 하나의 장난이요 게임에 불과한 듯 보인다. 아우렐리우스를 처음 만나 약속을 맺는 과정에서 그녀가 보여주는 행동은 합리적이며 이성적 품성을 지닌 귀족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철부지 여성에 보다 가까워 보인다. 자신의 남편이 원한 때면 언제든지 자신의 육체를 즐길 수 있다고 도리겐은 아우렐리우스에게 말하면서도 “장난삼아”(in play) 바다 위에 솟아있는 바위를 없애준다면 자신의 육체를 그가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는 이내 “흥겨운 놀이를 다시 시작한다”(revel new).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 즉 바다에서 바위가 없어지자 도리겐은 탄식에 탄식을 거듭하며 이런 일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agayns the proces of nature)이라고 말한다. 실제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이 말이 바로 결혼했을 뿐더러 귀족여성으로서 그녀가 범한 근본적인 잘못된 셈이다. 한마디로 그녀의 행동과 태도는 귀족신분의 결혼한 여성에게는 도리와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이다. 버린(Robert Burlin)의 주장대로 도리겐이 보여주는 행동과 태도는 유한계층의 무의미한 특권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녀의 성격은 한마디로 충동적이며, 어리석고, 현실을 자기 기준으로 왜곡시키는 거만한 여성으로 볼 수 있다(200).

도리겐 그리고 아르베라구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우렐리우스와 오를레앙의 마법사에게서 또한 화자는 자신이 의도했던 귀족의 덕목이나 가치를 이끌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들 또한 앞서 언급한 두 인물들과 큰 차이가 없는 존재들로서 화자의 관점을 독자가 있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독자와 화자 사이의 거리만을 키울 뿐이다. 특히 아우렐리우스의 행동과 태도는 도리겐과 매우 유사하여 그를 귀족적 덕목을 지닌 인물로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도리겐의 요구를 들은 뒤, 아우렐리우스가 보여주는 모습은 아르베라구스의 부재 후 도리겐이 보여주는 심리 상태를 그대로 재현하는 듯하다.

그는 두 손을 하늘을 향해 치켜들고
무릎을 드리넨 채 꿇어앉아서

열렬한 기도를 올렸다.

극심한 슬픔으로 인하여 그는 제 정신을 잃었고
자기가 무슨 말을 지껄이는 지도 모르면서.

Up to the hevne his handes he gan holde,
And on his knowes bare he sette hym down,
And in his ravyng seyde his orisoun.
For verry wo out of his .wit he breyde.
He nyste what he spak. (1024-28)

위에서 아우렐리우스는 마치 미친 사람의 모습으로 광란에 가까운 심리상태를 지니고 있다. 우드(Chauncey Wood)의 지적대로 도리젠과 마찬가지로 아우렐리우스의 모습은 지나칠 정도로 과장되어 있으며 아우렐리우스의 말과 행동은 그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반영하고 있듯이 반복적이며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703-4).

뿐만 아니라 도리젠처럼 아우렐리우스 또한 충동적이며 인내심이 부족할뿐더러 욕망에 사로잡혀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아르베라구스 없는 “이 넓은 세상” 도리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아우렐리우스에게 도리젠만 있다면 “이 넓은 세상” 자신이 주인이 된 기분이며 그 까짓 일 천 파운드의 돈은 아깝지 않은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면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점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존재가 이 세상 전부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언급한대로 도리젠의 감정은 결혼한 여성의 감정보다는 마치 연정의 대상에게 보이는 육체적 욕망에 가까워 보이듯이, 아우렐리우스의 감정 또한 엄격히 말해서 비도덕적이며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화자 또한 도리젠이 녀뚜리처럼 정절을 지킨 여인들을 나열하도록 내버려두듯이 아우렐리우스의 폭풍 같은 감정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고통과 근심 걱정으로 비애에 잠긴
이 아우렐리우스를 누워 있는 채로 남겨두기로 하고

그가 죽거나 살거나 다 팔자소관이니 그에게 맡기기로 하자.

Dispeyred hin this torment and this thought
 Lete I this woful creature lye;
 Chese he, for me, wheither he wol lyve or dye. (1084-6)

그런 뒤 화자는 이내 이야기의 초점을 귀환한 아르베라구스에게로 돌린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아우렐리우스와 훌륭한 기사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르베라구스의 대조는 아우렐리우스를 여러 면에서 부족한 존재로 부각시키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아우렐리우스는 도와주는 오를레앙의 마법사 또한 귀족의 덕목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보기 힘들다. 마법사에 대한 화자의 묘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법사가 화자인 시골유지 자신인 듯한 느낌이 든다. 마법사는 사물이나 인물의 실체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하나 눈에 보이는 외부세계를 순간적으로 바꿈으로서 보는 이의 눈을 속이는 존재이다. 화자 또한 자신의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과 행동, 그리고 태도를 통하여 가능하면 주위사람들에게 자신을 인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마법사나 시골유지는 주위 사람들의 시각(sight)을 이용하며 이들 시야에 일종의 환상을 심어줌으로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존재들이다. 특히, 아우렐리우스와 그의 형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고 있던 마법사는 처음 보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인상적인 눈요기를 보여준다. 마법사의 이러한 행동이나 시골유지가 「총 서시」와 그의 서시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보이기 위한 행동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마법사는 또한 「총 서시」에 묘사된 시골유지와 마찬가지로 하인에게 다소 짜증을 내는 어투로 음식 준비를 재촉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아우렐리우스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가 보여주는 상업적인 태도는 물질적 풍요를 성취한 시골유지의 생활태도와 상응한다. 결과적으로 화자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들 등장인물들 가운데 누가 가장 관대하냐고 묻는 질문 그 자체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셈이다. 우드의 주장대로 「방앗간 주인의 이야기」에서 니콜라스(Nicholas)의 점성술에 넘어가는 존의 어리석음을

풍자하듯이 「시골유지의 이야기」에서 또한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는 아우렐리우스와 그의 형을 조롱하고 있는지 모른다(707). 더 나아가 시골유지가 전하는 피상적인 이야기를 현실로,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전달하려는 도덕적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독자를 초서는 풍자하고 있는지 모른다.

III. 사회적 관습과 교회법을 통해 본 「시골유지의 이야기」: 비현실적이며 코믹한 픽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시골유지의 이야기」 안에는 화자 자신도 모르게 앞뒤 전후 서로 일치되지 않는 모순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자신의 의도에 따라 창조된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모습 또한 겉으로만 그럴 듯하게 보일 뿐 공허하며 우스꽝스러운 느낌만을 독자들에게 줄뿐이다. 이러한 효과는 단순히 작가인 초서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가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초서는 하나의 이야기에 화자의 관점과는 다른 자신의 목소리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매우 은밀하면서도 간접적인 방법을 즐겨 사용한다. 그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방법들로 화자 자신이 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자연스럽게 범하게 만듦으로서 독자가 화자의 이야기에 맹목적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는다. 이러한 방법들 외에 초서는 원전의 내용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필요이상의 많은 설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바쓰의 여장부 이야기」에서 ‘침실설교’의 내용은 원전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침실설교’에서 노파가 말하는 상당한 양의 내용들은 독자의 주관적이며 비판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파가 설파하는 내용들은 겉으로는 진실되게 보이나 실제 당시 독자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비현실적이며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노파의 생각은 당시 사회적 관습이나 법률에 비추어 볼 때 허무맹랑하고 우스꽝스러운 녀석들에 불과한 것이다. 「시골유지의 이

야기」의 화자 또한 자신의 의도를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이야기의 시작부분에 도리젠과 아르베라구스 사이의 결혼계약을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전하고 있다. 그러나 둘 사이의 결혼과 계약 내용을 접하는 당시 독자라면 아마 화자가 전하는 이야기가 도덕적 메시지를 담은 심각한 것이기보다는 동화 속 에나 나올 듯한 허구적인 것이라는 점을 미리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도리젠과 아르베라구스의 결혼계약이 결혼과 관련된 당시 관습이나 교회법에 비추어 볼 때 상식을 벗어난 터무니없는 것이기 때문이다.⁸⁾

궁정풍의 연애시에 등장하는 기사처럼 아르베라구스는 도리젠의 사랑을 구한다. 이에 도리젠은 그에게 연민을 느껴 그를 남편으로 그리고 주군으로 맞이한다(740-2). 그러나 화자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되기로 동의하는 과정이 당시 교회의 허가와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둘 사이에 결혼 동의를 “은밀하게”(pryvely) 이루어졌다고 화자는 말하고 있다. 당시 교회법을 감안할 때 이들 결혼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마저 피할 수 없는 것이다(Lucas 94 ff). 그러나 화자는 아르베라구스의 신분이 도리젠보다 낮아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처럼 둘 사이의 결혼 동의를 대하여 아무런 의의를 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정당성마저 화자는 부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은밀하게 이루어진 결혼과 함께 당시 독자의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은 둘 사이의 결혼 계약 내용이다. 그 가운데 특히 도리젠에게 하는 아르베라구스의 결혼 맹세는 당시 독자들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기꺼이 그는 기사의 명예를 걸고 그녀에게 맹세했다.

그는 평생토록 낮이건 밤이건 아내의 뜻에 반(反)해

8) 도리젠과 아르베라구스의 결혼이 이교도적 양식을 따르고 있기보다는 당시 종교적 양식에 의해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줄 수 있는 자료로서 G. E. Howard, *A History of Matrimonial Institutions*, 3 vols. (Chicago: U of Chicago P, 1904), I, 258 ff를 참고.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질투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에 자신의 아내에게 일체 순종하고 매사에 그녀의 뜻을 따를 것을.

Of his free wyl he swoor hire as a knyght
 That nevere in al his lyf he, day ne nyght,
 Ne sholde upon hym take no maistrie
 Agayn hir wyl, ne kithe hire jalousie,
 But hire obeye, and folwe hir wyl in al. (745-9)

아르베라구스는 자신의 이러한 자세는 “못 남성들이 자신의 여인에게 마땅히” 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에어스(David Aers)의 지적대로 아르베라구스의 서약은 결혼한 남성이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에 빠진 남성이 애인에게 하는 것으로, 아르베라구스 자신은 결혼과 연애를 혼동하고 있다(163). 이는 도저히 양립 할 수 없는 궁정풍의 사랑과 결혼을 마찰 없이 융합해보려는 화자의 이상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는 결과일 수 있다. 화자의 이러한 의도에 따라 아르베라구스는 남성으로서 마땅히 당시 결혼에서 우위를 행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궁정풍의 연애시에서나 볼 수 있는 행동과 태도를 보인다. 아르베라구스는 남편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명목상의 주도권”만을 가지겠다고 다짐한다.

도리젠에게 복종하고 매사에 그녀의 뜻을 따르겠다는 아르베라구스의 결혼 서약에 대해 당시 결혼과 관련한 교회법이나 관례를 조금이라도 아는 독자라면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아르베라구스의 서약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결혼과 관련된 당시 독자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이다. 초서는 『켄터 베리 이야기』의 마지막 화자인 시골사제의 목소리를 통하여 결혼에서 남편과 여성의 관계를 확실히 규정하고 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는 사도 바오로의 말을 인용해가며 시골사제는 결혼생활에서 남편의 우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골사제는 부인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를 행사하게 되면 분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926-7). 시골사제의

이러한 관점은 사제로서 주관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 결혼식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맹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시 결혼 관례나 법까지도 무시한 채 화자인 시골유지는 도리겐과 아르베라구스의 결혼 계약 내용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화자는 이들 둘 사이의 결혼계약이 인상적이었는지 이들 계약내용을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이다(761-70).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결합과 맹세가 마치 자신의 의도를 도출해내기에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는지 화자는 이들의 합의에 감탄마저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 어찌 겸허하고 지혜로운 합의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Heere may men seen an humble, wys accord!). 그러나 화자만의 일방적이며 임의적인 생각과 주장에 이의 없이 따를만한 독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독자와 화자 사이에 거리를 두기 위한 초서의 의도는 사랑과 결혼은 이상적으로 양립시키려는 화자의 노력에서 또한 나타난다. 화자는 도리겐과 아르베라구스의 결혼관계에 만족해하며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결론짓고 있다.

그리하여 그녀는 종과 지배자를 동시에 얻게 되었으니,
 그녀의 남편은 사랑에서 종이며 결혼에 있어서는 지배자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하인이자 지배자가 된 것이다.
 하인의 위치라고? 결코 그렇지 않다.
 그는 그의 여인과 사랑을 다 얻게 되었다.
 사랑의 법칙에 순응하기로 한 그의 연인이자 동시에 부인인 여인을 얻었으니
 지고한 지배의 권한을 지니게 된 것이다.

Thus hath she take hir servant and hir lord,—
 Servant in love, and lord in mariage.
 Thanne was he bothe in lordshipe and servage.
 Servage nay? but in lordshipe above,
 Sith he hath bothe his lady and his love;
 His lady, certes, and his wyf also,
 The which that lawe of love acordeth to. (791-8)

앞 뒤 서로 맞지 않는 역설과 반복을 통하여 화자는 집요하게 독자들에게 도리켄과 아르베라구스의 결합에는 궁정풍의 사랑(*amour courtois*)과 결혼이 이상적으로 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하인이 지배자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지배자가 또한 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결혼 후 남자와 여자의 올바른 자리 메김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야기되는 혼란과 문제에 대해서 당시 독자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펙 교수는 「시골유지의 이야기」에서 야기되는 모든 혼란과 갈등은 아르베라구스가 남편으로서 주도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이다.⁹⁾

또한 화자는 위의 인용문에서 “사랑의 법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용어를 화자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사랑의 법칙”과 관련하여 안드레아스 카펠레이너스(*Andreas Capellanus*)는 자신의 책에서 ‘결혼에서의 사랑’(love in marriage)과 ‘결혼 밖에서의 사랑’(love outside it)사이에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인들의 사랑과 결혼한 부부의 애정과의 차이를 그는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가 언급하고 있는 사랑은 하느님이 증오하는 것으로 결혼계약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사랑은 부부사이를 벌려놓으며 결혼 계약마저도 무너뜨린다고 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Bk. III). 구체적인 예로서 초서는 「상인의 이야기」에서 메이(May)와 다미안(Damian)의 연애가 재뉴어리(January)와 매이와의 결혼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고 있다. 결국 결혼으로 인하여 남편이 주도권을 쥐게 되면 궁정풍의 사랑이 지향하는 의미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결혼 후 남성이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도 당시 관례와 법에 비추어볼 때 도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여성이 주도권을 잡는 것은 더 더욱 상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결혼과 궁정풍의 사랑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화자와 화자의 이상적 모델인 아르베라구스는 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와 아르베라구스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랑과 결혼의

9) Russell A. Peck, “Sovereignty and the Two Worlds of *The Franklin's Tale*,” *Chaucer Review* 1 (1967): 253-71을 참고.

차이를 망각할뿐더러 혼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 다른 예로서 아르베 라구스와 도리겐이 결혼을 통하여 얻게 되는 세속적 욕망을 들 수 있다. 결혼 후 이들 부부에게 찾아온 기쁨(*joye*), 편안함(*ese*)과 물질적 여유(*properitee*)는 이들의 결혼이 전적으로 세속적 욕망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워드(Donald Howard)는 주장한다(227). 하워드의 주장대로 이는 당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결혼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결혼보다는 사랑의 목적에 더 가까워 보인다. 아울러 화자는 두 차례에 걸쳐 이들 단어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지향한 삶의 태도(*To lyven in delit was evere his wone; 335*)와 직결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초서는 결혼 서약과 함께 「시골유지 이야기」의 근간이 되고 있는 아우렐리우스와 도리겐의 약속에서도 독자들의 비판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화자는 도리겐의 약속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일종의 계약관계라는 사실을 아우렐리우스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부인, 저는 당신이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저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과 계약을 면제하여
당신 손에 다시 돌려 드립니다.

I yow release, madame, into youre hond
Quyt every serement and every bond
That ye han maad to me as heerbifom. (1533-35)

모건(Gerald Morgan)의 지적대로 아우렐리우스는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도리겐이 자신에게 한 약속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일종의 합법적인 계약임을 말하고 있다(114). 문제는 만약 아우렐리우스와 도리겐의 약속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라면 결혼한 여성이 자신의 뜻대로 이와 같은 계약 내지 약속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당시 법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허가 없이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법적 구속력을 지닌 계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었다.¹⁰⁾

초서의 시골사제 또한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허락 없이 “맹세를 하거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권한”(noon auctoritee to swere ne to bere witnesse withoute leve of hir housbonde)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931). 당시 교회법과 관습법에 비추어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도리겐의 약속을 당시 독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독자는 화자의 목소리에 회의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그가 하는 이야기를 한낱 픽션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끝으로 화자가 던지는 수사학적 질문—“여러분들 판단에는 누가 가장 관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Which was the most fre, as thiykneth yow?)—은 독자들에게 더욱 더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화자의 등장인물들이 행동과 태도로서 독자들에게 귀족의 됴됨이나 귀족의 덕목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귀족 같지 않은 화자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기사처럼 귀족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듯이 실제 도덕적 행동과 태도를 갖추지 않는 이들 등장인물들 또한 단순히 외면적으로 누구 가장 관대한 사람인지 경쟁하는 인상만을 준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계획한 이야기를 화자 스스로 그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내용 또한 통제하고 있지 못한 데 있다. 한마디로, 숨기려고 했던 화자의 신분적 열등감과 불안전함, 그리고 이로 인하여 비롯된 그의 행동과 태도가 낱낱이 당시 독자는 물론이거니와 오늘날의 독자들 앞에 밝혀진 셈이다.

주제어: 「시골유지의 이야기」, 내러티브 기법, 결혼, 궁정풍의 사랑, 젠트리 계층

10) W. S. Holdsworth, *A History of English Law*, 3 vols. (London: Methuen, 1909), III, 411; Frederick Pollock and Frederic William Maitland, *The History of English Law before the time of Edward I*, Second ed, 2 vols. (Cambridge: Cambridge UP, 1898), II, 405를 참고.

인용문헌

- 제프리 초서. 『캔터베리 이야기 III』. 이동일, 이동춘 역. 서울: 외대출판부, 2005.
- Aers, David. *Chaucer, Langland, and the Creative Imagin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0.
- Brewer, Derek S. "Class Distinction in Chaucer." *Speculum* 43 (1968): 290-305.
- Bryan, W. F., and Dempster, Germaine. *Sources and Analogues of Chaucer's Canterbury Tales*. Chicago: Chicago UP, 1941.
- Capellanus, Andreas. *De Amore*. Ed. and trans. P. G. Walsh. London: Duckworth, 1982.
- Condren, Edward I. *Chaucer and the Energy of Creation: The Design and the Organization of the Canterbury Tales*. Gainesville: UP of Florida, 1999.
- Chaucer, Geoffrey. *The Riverside Chaucer*. Larry D. Benson, gen. ed. Boston: Houghton Mifflin, 1987.
- Crane, Susan. "The Franklin as Dorigen." *Chaucer Review* 24 (1990): 236-52.
- Gaylord, Alan T. "The Promises in *The Franklin's Tale*." *ELH* 31 (1964): 331-65.
- Gerould, Gordon H. "The Social Status of Chaucer's Franklin." *PMLA* 41 (1926): 262-79.
- Holdsworth, W. S. *A History of English Law*. 3 vols. London: Methuen, 1909.
- Howard, D. R. "The Conclusion of the Marriage Group: Chaucer and the Human Condition." *Modern Philology* 57 (1959-60): 223-32.
- Huppe, Bernard F. *A Reading of the Canterbury Tales*. Binghamton: SUNY P, 1964.
- Jacobs, Kathryn. "The Marriage Contract of the *Franklin's Tale*: the Remaking of Society." *Chaucer Review* 20 (1985): 132-43.
- Kearney, A. M. "Truth and Illusion in *The Franklin's Tale*." *Essays in Criticism*

- 19 (1969): 245-53.
- Kelly, H. A. "Clandestine Marriage and Chaucer's *Troilus*." *Viator* 4 (1973): 433-57.
- Kittredge, G. L. "Chaucer's Discussion of Marriage." *Modern Philology* 9 (1912): 435-67.
- Lucas, Angela M., and Peter J. Lucas. "The Presentation of Marriage and Love in Chaucer's *Franklin's Tale*." *English Studies* 72 (1991): 501-12.
- Lumiansky, R. M. "The Character and Performance of Chaucer's Franklin." *UTQ* 20 (1951): 344-56.
- McCarthy, Conor. "Love, Marriage, and Law: Three Canterbury Tales." *English Studies* 83 (2002): 504-18.
- Own, Charles A., Jr. "The Crucial Passages in Five of the *Canterbury Tales*: a Study in Irony and Symbol." *JEGP* 52 (1953): 294-311.
- Morgan, Gerald. "Boccaccio's *Filocolo* and the Moral Argument of the *Franklin's Tale*." *Chaucer Review* 20 (1986): 285-306.
- Pearcy, R. J. "Chaucer's Franklin and the Literary Vavasour." *Chaucer Review* 8 (1973): 33-59.
- Peck, Russell A. "Sovereignty and the Two Worlds of the *Franklin's Tale*." *Chaucer Review* 1 (1967): 253-71.
- Pollock, Frederick and Frederic W. Maitland. *The History of English Law before the Time of Edward I*. Second ed. 2 vols. Cambridge: Cambridge UP, 1898.
- Rist, J. M. *Epicurus: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P, 1972.
- Robertson, D. W., Jr. *A Preface to Chaucer*. Princeton: Princeton UP, 1962.
- Saul, Nigel. "The Social Status of Chaucer's Franklin: A Reconsideration." *Medium Ævum* 52 (1983): 10-26.
- Sheehan, Michael M. "Marriage Theory and Practice in the Conciliar

- Legislation and Diocesan Statutes of Medieval England.” *Mediaeval Studies* 40 (1978): 416-17.
- Shoaf, R. A. “Chaucer and Medusa: *The Franklin’s Tale*.” *Chaucer Review* 21 (1986): 274-90.
- Specht, Henrik. *Chaucer’s Franklin in the Canterbury Tales: The Social and Literary Background of a Chaucerian Character*. Copenhagen: Akademisk Forlag, 1981.
- Wood, Chauncey. “Of Time and Tide in the *Franklin’s Tale*.” *PQ* 45 (1966): 688-711

The Franklin's Tale: a Moral Tale or a Fiction?

Abstract

Dongchoon Lee

Most critics have agreed with G. L. Kittredge that *The Franklin's Tale* offers a satisfactory solution to the marriage problem. Even some of them, having spoken of the very complete and harmonious happy marriage shown at the beginning of the tale, continues that the Franklin's commentary on this marriage appears to express the final Chaucerian English wisdom on marriage. In addition, after a series of tales dealing with the darker side of marriage, it is very pleasant to read in *The Franklin's Tale* a triumphant victory for good manners and sense. However, Chaucer does not usually allow himself such neat conclusions, and he often hides behind his narrator and manages to say much more than we think or the narrator says. To take the narrator's words as Chaucer's own results in missing the ironies and the humor on which the central statements of the poem rest. In a word, *The Franklin's Tale* can be interpreted as another of Chaucer's satiric masterpieces.

The narrator of the poem, the Franklin, is a self-made man. Business has taught him the value of maintaining, even catering to, his public image. He identifies himself with those like the Squire who are of higher social position than himself. At the same time he is obsequious in the hope of making a good impression on the rest of the company. Above all, in his worldly success he has become a strange blend of moral pretentiousness and hypocrisy. In addition to the characterization of the narrator which prevents a reader from passively taking what he says as Chaucer's own, Chaucer exposes in *The Franklin's Tale* profound contradictions and absurdities. Moreover, none of the characters

conceives of moral or spiritual virtues with which the narrator tries to imbue a reader. To one with the Franklin's values, upholding one's public image by fulfilling one's promises is of utmost importance. Regardless of such private "trouthe" as his marriage vows, Arveragus fears that might lose his reputation. Dorigen and Aurelius lead their lives with sense, emotion, and instinct as directed by the Franklin. Especially Arveragus nor Dorigen conceives of any of the moral or spiritual implications of their marriage.

In addition to the contradictions or the flaws revealed through internal analysis of the narrative, the important matters in the narrative such as the sanctity of the marriage vow, the keeping of promise, and so on are enough to verify that the Franklin's point of view cannot be viewed as Chaucer's own. Above all, the clandestine marriage between Arveragus and Dorigen was a punishable offence in terms of the standard medieval view. Arveragus's promise to obey Dorigen is a complete reversal of what should pertain in Christian marriage. In a word, when viewed against the Christian norm this novel marriage relationship seems inappropriate, even deviant. Dorigen's promise to Aurelius is the case that she should not have made the pledge. Under the common law, wives were unable to make contracts because they had no rights over property. Apart from the moral absurdity of Dorigen's promise, she ought not to have made a promise because of her legal disabilities as a wife.

Key words

The Franklin's Tale, narrative techniques, marriage, courtly love, gentry class